

# 제2회 경기도여성농업인대회 개최

## 6일 오전부터 포천 산정호수서 팔씨름, 우유마시기 등 경기 벌여

제2회 경기도여성농업인대회가 6일 오전 10시부터 포천 산정호수 국민관광지에서 펼쳐졌다.

이날 대회는 꿈과 희망의 경기 농업 앞서가는 여성 농업인이라는 주제로 경기도 내 여성 농업인들의 위상을 정립하고 단합과 화합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도내 여성 농업인 300여명이 참석했다.

오랫만에 일손을 놓고 한자리에 모인 여성 농업인들은 팔씨름, 고리던지기, 발육고 달리기, 우유마시기 등 화합행사와 노래자랑 및 축하공연 등의 문화행사를 통해 그동안 쌓인 피로를 씻고 친목을 다졌다.

또 행사장 주변에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쌀요리와 포천 이동막걸리 등 시·군별 농산물 및 가

공식품 전시장이 마련됐다.

이에 앞서 오전에 열린 개회식에서 김종숙 경기도여성농업인연합회장은 대회를 통해 "우리의 농업, 농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여성농업인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여성 농업인의 권익 신장과 농업 개혁, 농촌 회생을 위해 함께 나갈 것"을 당부했다.

또 박윤국 포천시장은 "아름답고 유서 깊은 포천의 산정호수에서 이번 대회를 치르게 돼 영광"이라며 "이번 대회 기간 그동안의 고통과 아픔 모두 잊으시고 아름다운 자연의 향취 속에서 좋은 추억을 가득 담아 가시길 바란다"고 환영사를 낭독했다.

이밖에도 격려사와 축사가 이어

졌으며 한연자 포천시여성농업인회장의 농림부장관상 수상 등 시상식이 진행됐다.

한편, 경기도여성농업인연합회는 96년 경기도후계자부인회로 결성되어 96년 명칭을 한국여성농업인 경기도연합회로 바꾸고 1대 회장에 강영오 씨를 선임했으며, 2002년 경기도여성농업인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문지연기자 soma7000@naver.com



6일 개최된 제2회 경기도여성농업인대회 행사장에 마련된 우리 농특산물 전시회장에서 참가자들이 포천시가 출품한 특산물을 둘러보고 있다. (문지연 기자)

# 포천 씨즐 맵 (Sizzle Map) '눈길'

## 124곳의 음식점 한눈에 쏘옥

포천시가 관내 음식점을 알기 쉽고 친절하게 소개하는 지도를 5일 펴냈다.

이 지도는 씨즐 맵 (Sizzle Map)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 여기에서 '씨즐(Sizzle)'이란 고기를 구울 때 나는 소리인 "지글지글"의 영어 의성어 표현으로,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포천의 먹거리리를 상징한다.

이 지도는 각각 ▶이동갈비촌 ▶풍혈산 순두부촌 ▶고모리 카페마을을 중심으로, 한 눈에 들어오는 삽화 지도를 통해 모두 124곳의 음식점을 소개하고 있다.

또 갈비에서부터 만둣국, 오리구이, 막국수, 추어탕, 순두부, 순댓국에 이르기까지 각 음식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놓아 미식가들의 구미를 더욱 돋우고 있다.

이 지도는 특히 각 음식점마다 매겨진 번호를 뒷면의 포천시 전

체지도에서 비교해 찾을 수 있도록 돼 있어 가고자 하는 음식점을 방문하기가 한결 수월해졌다.

씨즐 맵에는 이 밖에도 자가용과 버스 등 교통편별 이용방법과 농원, 리조트, 온천, 골프장, 문화시설 등의 연락처가 수록돼 있으며 포천시의 대표적인 산과 호수, 역사유적의 위치도 표시돼 있다.

문지연기자 soma7000@naver.com



포천의 먹거리를 모두 담은 씨즐맵이 5일 발간됐다.

# 안남근 제13대 영중농협조합장 취임

## 농협조합장 비상임에서 상임조합장 전무체제로 변경



체제로 출범했다.

상임 이사체는 폐지되고 전무는 이달안으로 선임할 계획이다.

이날 조합장에 취임한 안남근 조합장은 "지난 73년부터 영중농협에 입사하여 초심을 잃지 않고 조합장으로서 영중지역의 농산물유통은 물론 조합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임기동안 책임경영을 펼쳐 나가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안 조합장은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난 5일 영중농협 안남근 조합장(사진)이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4년 임기를 시작했다.

영중농협은 비상임조합장 상임이사체로 운영하던 기존의 방식을 변경하여 상임조합장 전무



영중농협 안남근 조합장이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다.

농산물 유통체제를 신뢰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남근 조합장은 지난 73년 2월 1일 영중농협에 입사하여 2000년 7월 16일 영중농협 상임이사로 근무하다가 2002년 2월 14일 영중농협 제12대 조합장으로 취임한 후 지난 5일 영중농협 제13대 조합장으로 취임했다.

김영복기자 best114@hitel.net

# 포천시 개별공시지가 공고

## 이의신청은 이달 30일까지

포천시가 2004년 1월 1일 기준, 과세대상 토지 20만5천241필지에 대해 6월 30일자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공시했다.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7월 30일까지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자는 포천시청 지가상환실에 비치돼 있는 이의신청서식에 내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되며, 관련 증빙서류 첨부도 가능하다.

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를 거쳐 8월 28일까지 통지할 방침이다.

한편, 포천시는 2004년 상반기에 분할,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한다.

시는 8월 7일까지 각종 인허가 사항과 지적공부 등을 토대로 현장조사를 실시, 매년 건설교통부에서 조사 평가한 표준지와 비교해 지가를 산정한다.

이에 대한 자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8월 21일부터 9월 9일까지 20일이다.

문지연기자 soma7000@naver.com

# 포천가구협동조합 정기교육 20일 실시

포천가구사업협동조합(이사장 함두규)은 오는 20일 오후6시 송우대마을에서 환경과 도시관련 정기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포천시청 환경보호과와 도시과에 의뢰해 관련 법규를 포천가구사업협동조합 회원사와 비조합원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함두규 이사장은 "정기교육을 통해 조합원들이 법규를 몰라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 회원들 상호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교육"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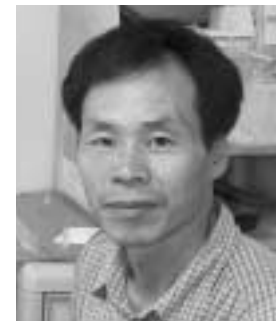
한편, 포천가구사업협동조합은 포천시 관내 목재가구제조 및 관련업체로 구성된 조합이다.

김영복기자 best114@hitel.net

# 우리 지역의 사업소 (28)

## 신한케미컬 김형진 대표

# 새로운 造景文化의 先頭走者



지속적인 技術革新과 研究開發로 금형제작, 성형사출에 국내 최고를 자랑하며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제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신한케미컬(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434-15 대표 김형진).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도록 신한케미컬이 설계, 제작한 아파트 실내 조경용 제품.

지난 2002년 대전리에서 위 소재로 이전에 최신키 기계설비와 최적의 관리 시스템으로 각종 플라스틱 부품을 생산하며 다년간 맥을 이어온 장인정신으로 국내(신도리코 OA 제품, 유통시장)는 물론 일본 등에 수출하면서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신한케미컬은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생활용품, 사무용, 문구용 제품을 풍부한 경험과 기술, 성실을 바탕으로 생산하고 있다.

그 밖에 20여명의 우수한 엔지니어들이 제품의 디자인에서 설계, 금형제작, 사출, 포장, 판매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시스템을 자랑하고 있다.

신한케미컬은 최근에 야심찬 계획을 갖고 "人間尊重" "未來指向" "環境親和"를 기본이념으로 새로운 미래창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있다.

신한케미컬의 야심찬 계획은 바로 새로운 조경문화, 다양한 디자인 연출, 간편한 설치, 수경재배로 어느 곳에서도 잘 어울리는 조경용 제품(이지 가드너)을 생산하고 있다.

차세대 제품 이지 가드너의 용도로는 실내정원(APT, 주택, 호텔 등), 교육용 식물재배, 수경재배, 사무실 공간 인테리어, 각종 영업소, 집안의 작은 텃밭(각종 채소류), 유치원, 학교, 교회, 성당(종교단체), 공공기관 각종 행사용 이벤트 조성, 조경공사(광역단체별 행사시 꽃길조성 및 거리축제에 필요), 집들이 선물세트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이지 가드너 특징으로는 각 부품을 조합하여

# 심플한 디자인, 손쉬운 이동 청결한 관리가 장점인 제품

김 대표는 "꿈은 우리의 미래를 비춰주는 현실의 거울입니다. 우리의 바램만큼 그 미래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더 크고 넓은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당당한 기개를 견지해 나가며, 꿈을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능동적인 자만이 무한한 가능성을 현실의 결실로 맺게 될 것입니다" 라고 강조했다.

또 "신한케미컬은 고객의 입장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품질을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창의성 있는 인재들과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고객만족, 고객감동의 실현을 위해 더욱 중진 하겠습니니다.

또한 미래지향적이고 공해 없는 깨끗한 환경 조성에도 앞장서 풍요로운 미래를 열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고 포부를 밝히고

설치용도에 맞는 제품완성, 추가부품 구입만으로도 새로운 형태의 연출이 가능, 제품의 특성상 청결한 관리가 가능, 아파트의 실내정원이나 작은 텃밭에 적합, 긴급히 필요한 조경이나 단기간 사용하는 행사용 조경에 적합, 수경재배로 자녀들에게 자연현상 학습의 기회, 신선한 새싹 채소로 식생활의 변화와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며 장점으로 어디서나 잘 어울리는 심플한 디자인, 설치 및 해체가 용이, 조경관리가 매우 쉽고, 뛰어난 이동성과 기타 소재를 사용하여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제품이다.

문의 전화 031) 544-0884

정병갑기자 jpk61@hanmir.com



미래지향적이고 공해없는 깨끗한 환경 조성에 앞서기 위해 항상 연구개발에 앞장서는 가산면 금현리 신한케미컬의 전경.

# 경기도 해외기업유치단 유럽방문 2일차 독일 홈멜베르크사 등 4개사 유치

## 유럽 최대의 자동차용 벨로즈 생산업체 위첸만 등 4개사와 도내에 공장시설 합의해

순환규 경기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기도 해외 유치단(유치단장 2일차인 지난 6일(현지시간) 스위스 반도체 장비 생산업체인 유닉시스(UNAXIS), 첨단 정밀측정기기 생산업체인 홈멜베르크(Hommelwerke), 유럽 최대 자동차용 벨로즈 생산업체인 위첸만(Witzenmann), 진공펌프 및 냉동크라이오 펌프를 생산하는 라이볼트(Leybold Vacuum)사 등 4개사와 대거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업은 평택시 현곡산업단지 및 화성시 의곡산업단지에서 생산시설을 설립하여 예정으로 각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들이며 고용창출효과는 물론이고

기술이전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들 기업중 유닉시스(UNAXIS) 및 라이볼트(Leybold Vacuum)사는 기존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유치단인 어연한산산업단지내에 투자하여 3차에 걸쳐 생산시설을 증설하는 등 성공적인 외투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발저스 한국로팅과 같은 그룹의 계열회사로 발저스의 투자성공사례가 한국진출의 기폭제가 된 것으로 알려져 정성들이 지원한 외투기업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매우 중요한 홍보창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후 지원업무의 중요성이 새삼 느껴지는 사례로 인식되고 있다.

아울러 독일의 위첸만 사는 세계 최초로 메탈호스 및 익스펜션조인트를 개발하여 자동차용 벨로즈를 생산하는 동분야 세계 3대 회사중 하나로 세계시장의 35%(유럽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으며, 라이볼트 베를린(Leybold Vacuum)사는 PDP배기장치 세계시장의 50%를 점유하는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으로 PDP 및 자동차 생산업체의 불투명업 질감 및 기술이전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치지역 유치단(유치단장 2일차인 지난 6일(현지시간) 스위스 반도체 장비 생산업체인 유닉시스(UNAXIS), 첨단 정밀측정기기 생산업체인 홈멜베르크(Hommelwerke), 유럽 최대 자동차용 벨로즈 생산업체인 위첸만(Witzenmann), 진공펌프 및 냉동크라이오 펌프를 생산하는 라이볼트(Leybold Vacuum)사 등 4개사와 대거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업은 평택시 현곡산업단지 및 화성시 의곡산업단지에서 생산시설을 설립하여 예정으로 각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들이며 고용창출효과는 물론이고

정병갑 기자 jpk61@hanmir.com

#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 부동산 매매가 아니어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보통 부동산을 양도한다고 하면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넘겨주는 "매매"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도 양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처럼 기한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교환
  - 당사자 쌍방이 별개의 자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도 양도로 봅니다.
  - 예를 들어 갑 소유 주택과 을 소유의 내대지를 서로 교환한 경우, 갑은 을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을은 갑에게 내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그러므로 갑과 을 양쪽 모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매된 경우
  -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매로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 이는 직접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이 아니라 타도 그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 이혼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
  -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 준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 대물변제
    - 채무를 부동산으로 갚거나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처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부담부증여
    -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대신 부담하는 증여를 말합니다.
    - 증여재산가액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고, 채무액을 제외한 순수한 증여분만 증여로 봅니다.
  -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회사를 설립할 때 금전 이외에 부동산 등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도 양도로 봅니다.
    - 이외에 협의매수, 수용, 공매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의정부 세무서 제공, 문의전화 031) 870-4252